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은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4월 29일) 2021년 6월 9일 수요일



한 권의 불교성전, 불교 중흥 밑거름

불교성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신심의 요체이기도 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는 〈불교성전〉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한 불자들의 웃는 모습이 불교의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인증샷 이벤트에는 6월 3일 현재 100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했다.

〈불교성전〉 보급 · 활용 제도화에 박차

조계종 포교원 · 디지털대 교육 일정 구성

사찰선 성전 읽기 모임 출범
개인 릴레이 구매 지속 증가
법회·불교대학 활용도 시작
"교재용 불교성전 개발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15일 종단차원에서 법보시 불사를 선포한 조계종 사상 첫 종단본인 〈불교성전〉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사찰에서의 법회 활용과 수지독송 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SNS를 통한 인증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자들의 수지독송 움직임에 발맞춰 체계적인 〈불교성전〉 활용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연화사(주지 장명)는 6월 15일 오후 2시 연화사 극락전에서 '불교성전 읽기모임'을 발족한다. 연화사 '불교성전 읽기모임'은 사찰에서 진행되는 첫 〈불교성전〉 수지독송 모임으로 동국대 교법사 출신의 박영동 법사가 주재한다. 읽기모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교성전〉이 무료 제공된다. 연화사 읽기모임은 〈불교성전〉은 종단본 불교성전 출간에서 기획됐다.

이 같은 〈불교성전〉 활용 움직임은 최근 전국 사찰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활용 사례는 법회서 법문 기본교재로의 사용이다.

칠곡 정암사(주지 대현)는 6월 10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서 불교성전으로 법회를 진행한다. 주지 대현 스님이 직접 불교성전에 실린 내용을 갖고 법문할 예정이다.

일산 원각사(주지 정각) 또한 일요법회마다 법문 주제를 〈불교성전〉에서 발췌해 법회를 진행한다. 원각사 측은 "〈불교성전〉을 바탕으로 법회를 진행하면 사전에 내용공지도 되고, 또 이른바 복습도 가능하다"며 불교성전 법회 개최 장점을 설명했다.

일부 사찰들은 교양대학 교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6월 2일 개강한 선재불교대학 입학생들에게 수업용 불교성전을 배포했다. **고양 노적사(주지 종후)**도 6월 6일 개강한 교양대학서 수강생들의 기본 교재로 채택했다.

개인들의 〈불교성전〉 소장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불교성전〉 보급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법보시 챌린지는 4차까지 진행돼 300여 명이 넘게 동참한 상태로 5월 27일에는 도반HC와 챌린지를 진행해 33명이 불교성전을 구입하기도 했다.

온라인 프로그램인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에는 1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증샷에는 다양한 이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불교성전과 아이를 함께 올린 불자부터, 아이돌인 BTS사진을 함께 올린 청년불자들까지 다양했다.

이 같은 불자들의 성원에 조계종은 향후 신도교육 등에 활용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중이다. 조계종 디지털대학은 8월 중으로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 대상 〈불교성전〉 교육 강좌와 10월 중 전문교육자 양성과정 등을 개설한다.

먼저 '스토리로 만나는 〈불교성전〉' 강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불교성전에서 스토리를 발췌해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동영상인 관계로 10분 내외로 편성되며 총 54강이 진행된다. '〈불교성전〉 강의교습법'은 스님과 포교사, 불교교육 현장에서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불교성전〉을 활용한 교육과 법문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다. 역시 개별 영상이 10분 내외로 편성되며 총 48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도 최근 교무회의에서 신도기본교육 개편에 관한 내용을 논의, 전국 불교대학 학장 간담회 등 〈불교성전〉 활용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튜브채널을 통해 불교성전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도 한 포교원은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불교성전과 디지털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부장 정인 스님은 "〈불교성전〉이 사장되지 않고 불자들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60여 불교대학에서의 활용 등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종단본 〈불교성전〉을 모본으로 수지독송이 편한 핸드북 형식의 〈불교성전〉과 전문 교육용 〈불교성전〉 및 교재를 개발하면 〈불교성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독송대회부터 〈불교성전〉 전국사찰 동시법회 등 종단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조계종, 기후위기 극복 위한 대국민 의제 추진한다

원행 스님, 환경의날 맞아
기후위기 담화문 첫 발표
'생명전환 불교행동' 수립



조계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의제를 제시한다. 특히 생명전환을 위한 불교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들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은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원행 스님은 '탄소중립과 생명전환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담화문'에서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개인이 지향해 온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며 "수직적인 성장사회가 아니라 윤회하고 공존하는 '순환' 사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에 조계종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전환 불교행동' 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10년간 종교계와 국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전환, 순환, 지족, 참여'라는 4대 전략기조와 방향을 정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불교의 세계관은 인간과 사회, 우주 만물이 하나의 세계로 상호의존적이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현재의 삶의 양식을 성찰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조계종과 불교계가 함께 하겠다"고 천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해인사 장경판전, 대중에 첫 공개

6월 19일부터 장경판전 내부 순례 프로그램 운영

해인사, "문화재 가치 향유"
매주 토일요일 사전예약제
1회당 입장인원 최대 20명

팔만대장경을 품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내부가 사전예약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제52호인 장경판전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큰 법회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개방돼 왔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6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인사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보이자 세계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팔만대장경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결단이다.

해인사 장경판전 순례 첫 일정은 6월 19일 오전 10시다. 이를 시작으로 매주 토 ·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차례 탐방이 진행되며 사전예약자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다. 문화재 보존 및 훼손 예방을 위해 회당 입장 인원은 10명~20명으로 제한된다.

사전예약은 해인사 홈페이지에 설치된 '팔만대장경 탐방 예약'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 낮12시 신청마감되며 기준 참가대상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순례 프로그램을 통해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을 공개키로 한 것은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팔만대장경은 국난극복을 위해 조성된 문화재인 만큼, 이시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 19일 첫 프로그램의 사전예약은 6월 5일부터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송지희 기자

